

선우농장 '비구-비구니 위상' 관련 어떤 얘기 오갔나

“잘못된 관행, 청구 보완해 고쳐야”

한국불교 승단의 뜨거운 감자로 비유되는 '비구·비구니 위상'을 들고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제9회 선우농장 16일 남문 실상사에서 열렸다.

'초기불교의 이부중(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논공에서 도법 스님은 기초강연을 통해 "오늘의 승가가 불평등 구조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 문제를 덮어두거나 회피하려고 할뿐 누구도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승가의 이름과 부작용을 각오하더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부중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은 또 이부중 문제에 있어 "승가 자체의 불평등 구조로 수많은 비구니들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비구 승가가 적극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이 뜻한 승가는 승가형성의 궁극적 목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꾸어 가야하는 현재 진행형 승가이며, 발로참회와 공론화로 올바른 승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구니 낮게 보는 교리·계율 부처님 친설로 받들 수 없다”

발제에 나선 법인 스님(대행사 수련원장)은 "비구니는 인격적이나 교육, 수행 등 모든 면에서 한국불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 스님은 그 예로 "여인오장설, 정법감소설, 여인불성불설, 팔경법 등의 교리와 계율에 비구는 우월하고 비구니는 열등하다는 관념이 나타나 있어 각종 인사와 의사결정에 비구니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되는 교리와 계율은 불법으로 비취볼 때 도저히 부처님 친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후대에 첨가 됐 것으로 본다"며 "현실적으로 연연하지 않아도 될 팔경법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인 스님은 이부중 문제 해결방안으로 △위계는 법법 우선 △참회법은 각각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구니에 대한 비구의 폭언폭행도 제기됐으며, 양성평등 보다는 출가자 자질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 법인 스님 역할 커져도 불평등 대우 여전
- 해능 스님 비구니 계율 강의 비구니가 해야
- 도법 스님 '계율 절대론-폐지론' 모두 극단

의 수행처소에서 해결 △중양중무기관 비구니부 신설 △비구니 계단설치 등을 제시했다.

논평에 나선 해능 스님(해인총림 울원장)은 "팔경법은 비구, 비구니라는 특수한 관계의 두 집단이 서로 존중하며 보호하고, 화합하도록 하기 위한 부처님의 고뇌가 담긴 제도"라며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비구니를 받아들여야 할 비구들의 인식전환이 문제이지 팔경법 폐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능 스님은 또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기보다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며 승가에 잘못 적용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향후 종단과 율사 스님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오 스님(대행사 주지도) 논평에서 "팔경법 폐지보다는 양성평등의 청규를 제정해 교단을 수평구조로 바꾸어 가자"고 말하고 △비

구니 교구분사 신설 △비구니 참정권 확대 △행차교육, 수계식에 이부중 상호존중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스님은 또 "비구니에 대한 비구들의 불평등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은근히 비하하거나 막무가내형 반말과 폭행"을 들었다.

논평에서 세동 스님은 "양성문제에 있어 절박한 비구니보다 비구가 앞장서 문제제기를 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표하고 "만약 부처님이 여성이고 남성에 대한 팔경법이 나왔다면"이란 가설로 팔경법 문제를 제기했다.

윤문사 진관 스님은 "비구니 위상에 부당함이 많다"며 "예를 들어 예전엔 비구니 계율강의는 비구니가 했는데 최근엔 비구가 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계율 절대론이나 폐지론은 또 다른 극단이다"며 발제자 법인스님의 '팔경법 원점에서의 논의'와 논평자 해능 스님

의 '계율수지'를 모두 비판하고 "설령 팔경법이 이부중의 상호존중과 비구니 보호를 위해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대로 두더라도 청규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능 스님은 "율장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승단의 청정과 화합을 위해 계율은 만들어지고 보완해 왔다"며 "불법 실현에 바람직하다면 지켜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청정화합을 위해 청규로 보완되는 것이 율장의 기본으로 본다"고 계율의 유연함을 보였다.

그러나 해능 스님은 "율장을 불평등하다거나 세간의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하고 "팔경법은 비구가 비구니를 보호하고 비구니도 비구의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정신이 담겨있어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비구니계 교육에 있어서는 "은사 비구니가 제자 비구니를 가르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포살이나 비구니 계율강의는 비구니가 해야 한다"고 답하고 스님들의 율장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당부했다.

“비구들 인식전환이 중요 팔경법 폐지로 해결안돼”

월암 스님(월불암 주지)은 "선원 문제는 선방 수좌들이, 계율 문제는 율사 스님들이 기반성과 문제제기로 바람직한 승가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며 향후 이부중 문제에 율사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비구니 대기 스님(진주포교원장)은 진오 스님의 논평에서 제기한 비구의 폭언에 대해 "이것은 양성평등 문제라기보다 출가자 자질문제"라고 지적했다.

불교연대 대표 행법 스님(광주 선덕사 주지)도 "비구니들은 비구들의 폭언, 폭행에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다"며 "출가자의 상식이 통하는 승단이 되도록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우농장은 자체평가를 통해 "주제가 민감했던 것에 비해 스님들의 참여가 적어 아쉬지만 오랜 동안 묵혀두었던 이부중 문제를 비구승이 앞장서 공론화 했다는데 큰 의의를 둔다"고 평했다. 남원·이준명 기자

“명상·심성문화 만들자”

불교생명윤리연구소 토론회 주요내용

불교적 관점에서 인공과 생명 윤리학, 사형제도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또 어떤 실천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불교생명윤리연구소(소장 진관)가 2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4층에서 개최한 제1회 토론회에서 그와 관련한 답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토론회는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가 '불성 계발과 인권 확장을 위한 현대적 방안'을 주제로 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현대산업혁명, 물질문명을 대체할 수 있는 불교적 대안문명이 제시돼야 할 때"라며 "들 뜬 사회를 진정시켜 줄 명상 문화와 심성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사회·국민생활체육을 보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의 지평을 확장하기

을 포함시켜야 하며, 생명과학 및 공학 전공자에게 생명윤리를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 중 가장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은 차차석 박사(철학)의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 교리적 접근' 주제 발표였다.

차 박사는 아힘사(비폭력)와 자비, 계율과 불살생, 인간 예매 등으로 사형제도와 불교 교리적 입장을 살펴본 뒤 "타인을 죽이지 않는 것, 다른 생명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불교적 실천 윤리 위에서 기본원리로 요청받고 있는 이유는 '연기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한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생명윤리 교육 의무화를 "사형은 헌법상 생명권 침해"

위해 △개인적인 기복불교를 사회적 참여불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행 지침과 프로그램 개발 △국제적인 불교연대 조직 △일반 시민인권단체와 연대 △인권 관련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는 "문제는 지혜가 자비와 함께 해야 하고, 상구보리가 하회중생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득 교수(전북대 철학과)가 '생명윤리학 논의의 허와 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윤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실천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과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윤리학 논의가 공허해지고 있다"며 "윤리교육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의료인 및 생명공학자에게 대한 생명윤리 교육을 의무조항으로 만들고, 의사고시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생명윤리 과목을

라고 주장했다. 또 "생명 그 자체는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도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그 근거로 "불교의 자비 사상이나 아힘사 정신은 모두 생명 그 자체가 그대로 목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30년 동안 사형제 폐지 운동을 펼쳐온 이상혁 변호사는 "모든 생명체를 한데 묶어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문했다. 또 "사형제 폐지 운동은 홍보와 사회지도층 인사 설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일본 최대의 불교종파인 오오다니파가 재작년 사형제 폐지 입장으로 돌아선 것에서 불교적 근거를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정기용 교수(경향대 법학과)도 "사형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법률적 모순을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갑신년 가사불사 및 예수재 안내

불자들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사(袈裟)란 공덕의(功德衣)라 하여 불가(佛家)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法)을 전해 줄 때 상징적인 증표로서 여길만큼 법(法)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오덕(袈裟五德)이라 하여 가사를 존중하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하였고, 가사십리(袈裟十利)라 하여 가사를 수호함으로써 얻는 열 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탈의 덕을 지녀 설법할 때나 의식 집행 시 빠짐없이 수함으로써 보살행이 서려 재해재난을 녹이고 수복안락(壽福安樂)을 기르니 사부대중이 지극한 정성으로 가사를 조성하여 범려에게 의공양(衣供養)하여 무량공덕을 짓는 **가사불사**를 봉행코저 합니다.

또한 윤달의 해를 맞이하여 세세생생 지어온 업장을 참회하여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살아 생전에 복덕과 수명을 증장하고 사후에는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생전예수재**를 아울러 봉행코저 하오니 모든 불자님께서는 동참하시어 무량공덕과 불국정토의 왕생을 성취하는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입재일 : 2004년 3월 1일 월요일(음력 2월 11일) 10시
회향일 : 2004년 4월 18일 일요일(음력 윤 2월 29일) 10시
초제 3월 7일(음력 2월 1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영가연도재를 지냅니다.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및 사리탑**

*** 가사불사 동참금**
대 가 사 : 100,000원
오조가사 : 50,000원

*** 예수재 동참금**
예수재 설관 : 200,000원
동 참 : 50,000원
영가 1위당 : 10,000원

■접수 및 연락처
통도사(회엄전) : (055)381-1288, FAX : (055)382-7196
부 산 : (051)816-2241(부산포교당), 522-3202(청송암), 646-6461(보광사)
창 원 : (055)255-6359(구룡사) / 마 산 : (055)246-8393(마산포교당)
밀 양 : (055)352-1150(표충사) / 창 녕 : (055)533-2295(창녕포교당)
울 산 : (052)211-3340(해남사), 243-8712(백양사), 251-4602(월봉사)
서 울 : (02)575-7766(서울구룡사) / 일 산 : (031)905-7766(일산여래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합장 ☎055)381-1288**